

「애틀란타 NetWorld+Interop 2001 박람회」 한국관 운영을 마치고



정보통신산업팀 임호기 과장

전자산업진흥회는 지난 9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미국 애틀란타 조지아월드콩그레스센터에서 개최된 세계 최대규모의 네트워크 및 인터넷장비 전문전시회인 『NetWorld+Interop 2001(이하 “N+I”)』에 전문 벤처기업 11개사로 한국공동관을 구성하여 참가하였다.

매년 개최되는 N+I는 올해가 열 다섯번째로써, 봄에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같은 이름의 전시회와 함께 세계 네트워크 및 인터넷 장비업계와 관계자가 가장 많이 참가하는 이 분야의 대표적인 전시회이다.

진흥회는 그동안 라스베가스 COMDEX FALL, 런던 MEDIACAST(케이블 및 위성전문쇼) 등 10여개의 해외 전시회에서 수십차례 공동관을 운영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에 처음으로 애틀란타 N+I 전시회에 한국관을 구성하여 참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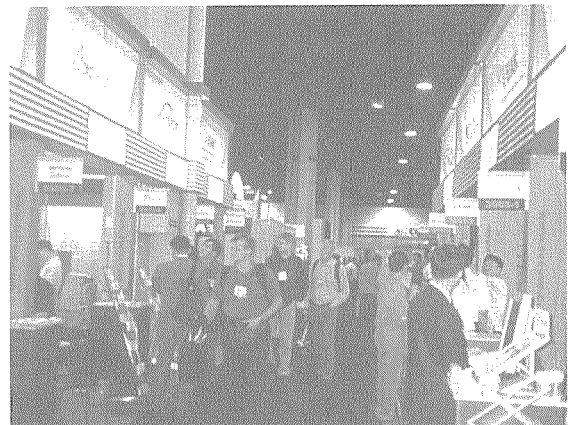
이번 행사에는 어바이어와 AT&T, 케이블&와이어리스 USA, 컴퓨터어소시에이츠(CA), HP, IBM, 마이크로소프트 등 네트워킹 업계의 선두기업들을 비롯한 650여개 업체가 참가해 네트워킹 산업의 신기술 및 동향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었다.

기업체들의 전시관 외에도 신생 기업들을 만나볼 수 있는 스타트업 시티(Start-up city), 임베디드 네트워킹 기술을 선보일 ENT존(Embedded Network

ing Technology Zone) 등 3개의 존이 별도로 마련돼 관람객들에게 첨단 네트워크 기술 및 제품을 선보였다.

이 중에는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무선제품과 기술에 대한 수요를 반영해 무선기술과 제품을 전문적으로 선보일 '인터롭 와이어리스 테크놀로지 존'이 특별히 마련돼 Wi-Fi와 블루투스 기술 등 업계 최신의 무선기술도 선을 보였다.

한아시스템 등 11개 국내업체가 참여하는 한국기술관에서는 xDSL 모뎀 및 라우터, 홈 PNA, 무선랜, 이더넷 등의 네트워크 장비가 전시되었고 다산인터넷



네트와 라오넷 등은 별도의 부스를 마련, 광전송장비와 MPLS라우터 등을 전시하였다.

이번 전시회는 개최지이자 최대의 시장인 미국경제가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다 우리나라 등 세계적으로도 IT 경제가 유례없는 침체를 겪고 있는 상황에 열리게 되어, 바이어와 참가기업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와 이번 전시회를 계기로 IT 산업이 활성화 될 것이라는 기대를 함께 가지고 시작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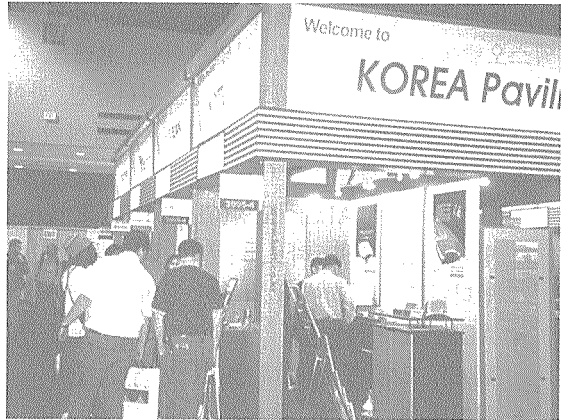
그러나 전시회 개막일 아침에 미국 뉴욕 등 각지에서 동시에 터진 사상 최대의 테러(이른바 911테러)사건은 전시회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전시장 개장시간이 단축되었고 항공기 운항이 전면 금지되어 바이어 등 참관객이 개막일 부터는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하는 바람에 예상바이어에 비해 1/2이상이 감소된 것으로 추산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흥회가 전시회 참가업체를 대상으로 일일실적을 조사하여 집계한 결과에 의하면 우려에 비해서 매우 선전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첫째, 대부분의 주요바이어는 전시 개막전에 에틀란타 현지에 이미 도착하였고

둘째, 우리 기업들이 세계에서 가장 앞선 국내시장 인프라를 기반으로 제품의 기술력등 경쟁력을 확보한 것이 어필하였고

셋째, 경쟁국가에 비해 다양한 기술과 제품을 다양하게 선보임으로서 바이어들에게 호응을 얻었기



때문이며

넷째, 항공기 운항 금지로 이미 에틀란타에 온 바이어들 또한 외부로 나갈 수가 없어 같은 업체를 두 번 이상 방문, 비교적 구체적인 상담이 이루어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국공동관 참가업체 11개사 - 상담액 6,500만불, 계약금액 1,500만불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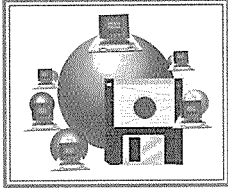
진흥회가 집계한 한국관 11개사의 실적은 3일동안 총 상담금액이 약 6,500만불, 계약금액은 약 1,500만불로 나타났다. 한국관을 찾은 바이어 총수는 12,000여명에 총 상담건수는 약 750여건에 이르렀다.

(단위 : 천US)

내방 바이어수(명)	상담액	계약액
12,000	65,000	15,000

< 방문바이어 성향 분석 >

방문 바이어	총 방문객	약 50,000명(추정)
	한국관 방문 바이어	약 12,000명
바이어 분포	기업 규모	소기업(35%), 중견기업(21%), 대기업(44%)
	기술 숙련 정도	전문가(19%), 상급(47%), 중간급(29%), 초보(4%)
	직위	집행 결정권자(중역)(17%), 중간관리자(42%), Staff(41%)
	기업 예산집행 규모	50만불 이상(49%), 10만~50만불(26%), 10만불이하(25%)



이번에 한국관에 참가한 업체는 넥스컴시스템, 디엑스오텔레콤, 비즈넷테크, 성일텔레콤, 셀레콤, 시스플, 시큐브, 아라기술, 텔로드, 한국하나통신, 한아시스템 등 11개사이다. 우리 기업들이 출품하여 호응을 얻은 주요 제품들은

- ▲ 케이블 모뎀, ADSL 모뎀(CPCI, USB, Ethernet 방식 등), ADSL 허브, 라우터 등 국내 초고속 인터넷 장비시장에서 검증된 장비
- ▲ ADSL보다 한단계 발전한 VDSLAM 및 VDSL 모뎀 등 차세대 초고속인터넷 장비
- ▲ 인터넷을 이용한 음성통화시스템 등 VoIP (Voice over Internet Protocol)장비
- ▲ 인터넷과 전화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인터넷 스크린폰
- ▲ 라우터, 허브, 랜카드 등 네트워크장비 이다.

테러여파로 인한 개장시간 단축, 공항 폐쇄 조치에도 불구하고 선전

또한 이번 전시회에 출품된 품목은 인터넷 및 네트워크장비가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나 한국관 참가업체 중에는

- ▲ CDMA Multi-Tone Generator 등의 통신용 계측장비와
- ▲ PCS 및 IMT-2000용 선형증폭기(LNA), 방향성결합기 등 기지국 장비
- ▲ IMT-2000 또는 PCS용 Duplexer, Multiplexer 등 부분품을 선보여 주목을 받았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이번 전시회는 개막(9/11, 10:00) 직전 터진 대규모 테러사건으로 인해 개장 초부터 바이어들과 전시 참가업체 관계자들이 생중계되는 사건 관련 보도를 예의 주시하며 슬렁대는 모습이었으나, 이내 제품 홍보와 상담 등 전시회 본연의 활기찬 모습을 되찾았다. 그러나 추가 테러 공격에 대비한 안전조치로 전시장이 당초 예정시간보다 4시간 빠른 오후 2시에 폐장되고 2일째인 12일

에도 1시간 30분 빠른 오후 4시반, 마지막날인 13일에는 오후 2시에 각각 폐장되는 등 3일 내내 단축 운영되었다.

한편 전시회에 참가한 기업들 대부분은 공항 폐쇄조치로 인해 당초 예정보다 2~3일 늦었으나 모두 무사히 귀국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기술적 측면에서 이번 전시회에는 메트로에어리어네트워크(MAN) 솔루션의 차세대 핵심장비로 주목받고 있는 10기가비트 이더넷 스위치장비가 대거 선보였다.

시스코와 어바이어, 익스트림, 노텔 등 세계적인 네트워크장비 업체들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10기가비트 이더넷 연합회는 이번 전시회에서 10기가비트 이더넷 상용화 제품의 시연회를 개최했으며 어바이어와 시스코, 익스트림, 파운드리네트웍스 등도 각각 자체 개발한 10기가비트 이더넷 스위치를 내놓고 본격적인 시장경쟁에 들어갔다.

이처럼 주요 네트워크장비 업체들이 이번 전시회에서 10기가비트 이더넷 스위치의 시대를 본격 선언함에 따라 기본적으로 40km까지 별도 증계기가 필요없이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네트워크시스템 구축이 가능해지는 한편 향후 신규시장 선점을 위한 각 업체간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10기가비트 이더넷 스위치를 출품한 어바이어는 이번 행사에 풀컬러 터치스크린이 탑재된 인터넷폰인 '어바이어 4630 IP 스크린폰'과 조만간 출시예정인 VoIP기능이 부가된 개인휴대단말기(PDA)를 공개해 눈길을 끌었다.

또한, 이번 전시회를 통해 나타난 새로운 경향 가운데 주목할 만한 것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인터넷 트래픽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컴퓨터 어소시에이츠(CA)와 라드웨어 등 기존 업체를 비롯해 라오넷과 페리비트네트웍스 등 신규 벤처기업들이 다양한 형태의 트래픽 분산솔루션과

전송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네트워크 부가장비를 많이 선보였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참가 업체들은 이번의 테러사건으로 인한 전시회의 차질에도 불구하고, 내년에도 전시회에 참가하여 해외시장 확대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번 행사의 주관자인 진흥회는 내년도(2002. 9. 10~9. 12)에는 한국관 규모를 올해보다 200평방피트 늘린 1,800평방피트로 확대하고 위치도 전시장 가장 중앙 부분으로 잡았기 때문에 올해보다 한결 전시효과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관 참가업체 현황 >

번호	업체명	대표자	전화번호	Web Site	출품 품목
1	한국하나통신(주) Korea One Telecommunication Technology Inc.	박성진	553-3437	kott.co.kr	ADSL모뎀(내장형, 외장형) 장비
2	(주)성일텔레콤 Sungil Telecom Co., Ltd.	조주환	3413-2055	sungitel.com	ADSL모뎀, 라우터, 특수전화기
3	(주)텔로드 Tellord Co., Ltd.	배방희	3476-4422	tellord.com	웹캐쉬서버, ADSL계측서버 등
4	(주)한아시스템 Hana System Inc.	신동주	2185-2636	hanasys.co.kr	네트워크장비 등
5	(주)아라기술 ARA Network Technologies Co., Ltd.	이재혁	3446-6070	aranetwork.com	JAGUAR2000, JAGUR/MediaFlow
6	(주)시큐브 SECUVE Co., Ltd.	홍기용	031-789-5311	secuve.com	웹그리핀(해킹방지솔루션) 등
7	셀레콤(주) Celecom Microwave Technologies Inc.	고용복	031-322-7080	celecom.co.kr	Cavity filter, DR filter, Duplocer
8	(주)넥스컴시스템 NexComm Systems Inc.	정양기	031-781-1862	nexcomm.co.kr	초고속인터넷용 장비
9	디엑소텔레콤(주) DXO Telecom	황충선	3282-7849	dxotel.com	IP VDSL Switch, Cable Modem
10	(주)시스폴 SYSPOL Co., Ltd	성기철	6009-6031	syspol.com	Cable Modem, Home PNA 등
11	(주)비즈넷테크 Biznet Tech Corp.	박영덕	472-0333	biznetech.com	BPN Switching Hub, V Ethernet, etc.